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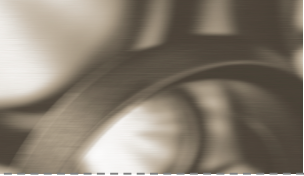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스웨덴의 노동시장 전망

손혜경 (스톡홀름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은 인구가 약 900만 명으로 내수시장이 제한되어 있고 수출의존성이 높아 스웨덴의 경제발전은 세계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세계경제는 2004년 전반부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약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세계경제가 약세로 돌아선 이유로는 나날이 상승하는 국제 유가와 최근 들어 주춤해진 경제확장정책을 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계속 확장되고 있는 금융정책, 지속적으로 낮은 채권수익률 그리고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을 예고한다. 특히 세계 두 경제 대국인 미국과 일본에서의 취업률 증가는 실질소득 증가에 유리한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가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글로벌경제는 2005년과 2006년 모두 4%가 약간 넘는 성장을 하리라고 예상된다. 높은 국제 유가가 도처에서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글로벌경제는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지 않으면서도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The Swedish Government, 2006:9).

스웨덴의 주요 교역국이 위치한 유로 지역의 경제는 2001년 이후 줄곧 약세를 유지하였지만, 2004년 여름 이후 잠정적으로 성장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산업생산량이 최근 몇 달 사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려면 내수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 이유로 최근의 경제성장은 가계소비가 낮은 이유로 성장의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것은 소득의 증가가 크지 않고 유로 지역의 지속적으로 높은 실업률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하지만 투자와 수출은 상당히 강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005년도 유로 지역의 경제성장은 1.3%의 미미한 성장을 기록할 것이지만 2006년도에는 1.8%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지속되는 고 실업률 해결과 적정 인플레이션 유지가 유럽중앙은행의 목표인 것을 볼 때 유로 지역은 전반적으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해야만 할 것이다. 유로를 아직 채택하지 않은 스웨덴의 복구 이웃 국가와 영국의 경제성장은 내수시장의 호조로 유리하게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ibid, 10).

스웨덴의 경제는 현재 확장 국면이다. 2004년에 수출이 급격히 증대되었는데 특히 제약업, 교통 장비 그리고 전기, 통신산업 제품의 수출이 많이 증대되었다. 전기, 통신산업 분야의 지난 수년간 지속된 경기침체는 이제 막바지에 도달하였으며 IT산업의 경우도 근본적으로 같은 국면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경기 상승 효과가 모든 제조업에 파급되었을 뿐 만 아니라 IT를 포함한 제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도 파급되었다는 것이다. 2005년에는 수출의 증가가 약간 둔화된 반면 제조업분야에 있어 설비 투자와 주택건설 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기침체 국면 전 기간에 걸쳐 내수시장은 만족한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그런 이유로 도·소매업이 속해 있는 민간서비스 분야의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하지만 경기침체 기간 동안 지방정부는 긴축재정으로 곤란을 겪었다. 그래서 중앙정부는 2005년과 2006년 예산 편성시 지방정부가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추가하였다(The Swedish Institute, 2005).

스웨덴의 중앙은행(Riksbank)은 2004년 4월 이후 재할인율을 2.0%로 유지하다가 2005년 6월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재할인율을 하향 조정한 것은 2005년 초기에 시작된 낮은 인플레이션과 둔화된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재할인율이 낮았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2003년 이후 확장세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낮은 재할인율은 2004년과 2005년에 스웨덴 경제에 있어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것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 단행된 재할인율 하향 조정의 전반적인 경제 효과를 보려면 2006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스웨덴 경제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저조한 자원 이용률로 말미암아 스웨덴 중앙은행은 이렇게 낮은 재할인율을 2005년 후반과 2006년 전반에 유지하다가 2006년 말이 되면 서서히 2.5%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The Swedish Government, 2006: 11).

스웨덴 정부의 재정정책은 2004년에 이후 확장세에 있었으나 이러한 확대정책의 효과는 지방재정

의 긴축정책과 병가로 내는 노동자 수의 감소로 상쇄되었다. 스웨덴 중앙정부가 발표한 2005년 예산안은 2006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 1%에 상당한 확장 정책인데 2007년이 되면 그 효과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종합해 보면 정부의 최근 경제정책은 2006년 국내수요 증가에 강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된다(ibid,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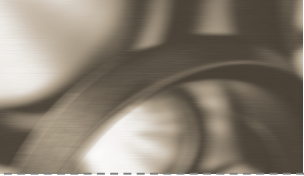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스웨덴의 GDP 성장세는 2004년 후반기에 상당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전체적으로 3.6% 성장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스웨덴의 이런 높은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임시적인 상황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2004년은 2003년에 비해 근로일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근로일수의 증가를 감안하면 2004년의 국내총생산 증가는 3.1%가 된다. 2004년 후반부에 시작된 국내총생산 증가 둔화는 2005년의 국내총생산 수치에도 영향을 미쳤다. 스웨덴의 경제는 2005년 하반기 몇 달간 다시 성장세로 들어섰지만 2005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2.4%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5년도 말에 시작된 이렇게 강한 경제성장은 2006년도에 들어서도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도에는 근로일수가 2005년도 보다 적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2006년도의 국내 경제성장률은 3.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ibid, 11).

■ 최근의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최근의 노동시장

스웨덴은 1993년과 1997년 사이에 완전실업률(open unemployment rate)이 최고 8%로 올라간 적이 있다. 그 당시 스웨덴 정부는 실업률을 앞으로 약 4%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2001년과 2002년 사이에는 이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이후 또 다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런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2003년 후반기에 회복을 시작한 이후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취업률은 2003년과 2004년 연속으로 떨어졌으며 2005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2004년에는 실업률이 5.5%를 기록했으며 2005년에는 스웨덴 기준으로 약간 높은 수치인 약 5.7%를 유지하고 있다(The Swedish Institute, 2005 and the Swedish Government, 2006).

그래서 최근 스웨덴 정부는 실업률 4% 미만 유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각종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램을 확대해 왔다. 2003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92,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되었고 2005년 9월 현재는 이런 일자리가 약 121,000개로 증가했다. 2006년 새해 정부 예산에 이런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 포함되어 2006년에는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으로 약 162,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The Swedish Government, 2006:15). 이런 직접적인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이외에도 정부 예산에는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감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지원 증대, 그리고 대학입학 정원 증대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 모두가 실업률을 감소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스웨덴의 노동시장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먼저 지난 수년간 스웨덴 경제의 생산성은 높았다. 이렇게 강력한 생산성의 증대는 기업들이 노동시간의 투입을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생산성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성장이 국내총생산의 성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기업의 생산성은 최근 몇 년에 비해서는 더 미미하게 증가할 것이다. 기업이 앞으로 더 이상 생산을 합리화할 여지가 줄어들고 건설, 민간 부문 서비스 분야, 공공부문 등 노동집약성이 강한 부문에 수요 증대가 집중될 것이다. 노동시장을 약세로 만든 또 다른 요인은 2004년에 평균 노동시간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 증가세는 2005년과 200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 회복기에는 기업들이 우선 이미 고용된 인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04년에는 또한 병가로 일터를 떠난 인원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서도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과 2003년 사이 병가의 증가가 신규 채용을 늘렸듯이 최근에 병가를 내는 노동자들의 감소는 고용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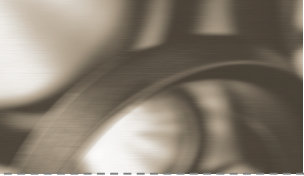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노동시장은 2005년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조짐이 보였다. 2004년 가을 이후 여러 개의 노동시장 지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동해 왔다. 예를 들어 정부 노동시장위원회에 보고된 신규 채용 일자리의 수가 2004년 중반부터 증가했다. 이에 덧붙여 최근 스웨덴의 국립경제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NIER)에서 발표한 기업동향 조사에 의하면 건설업과 민간부문 서비스 분야에서 신규 채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계절적인 변화와 노동일수를 감안하면 2005년 2/4분기의 노동시간이 2005년 1/4분기에 비해 0.4% 증가하였다. 2005년에는 노동시간이 약 0.4%씩 증가할 예정이고 2006년에는 1.1%씩 증가할 예정이다. 2005년에는 고용의 증대가 작아 단지 0.1% 오를 예정이지만 2006년에는 1.3% 오를 예정이다. 현재 실업률은 5.7%로 높지만 내년에는 4.8%로 하락할 것으로 예

상된다(ibid, 16). 이것은 물론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대로 유지되고 또한 노동시장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오늘날 스웨덴의 실업률을 토론할 때 특히 주목할 점은 실업구조가 예전의 경기침체 기간과 비교하여 약간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현재 실업자들의 상당수가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SACO, 2006). 이것은 최근의 경기침체시 IT와 통신산업에 근무하던 고학력 인력이 많이 감축된 이유이다. 같은 이유로 스웨덴의 세 곳의 대도시 특히 수도인 스톡홀름 지역에 실업률이 상당히 올라갔고 그 반면에 지방의 소도시들은 경기침체의 위기를 비교적 잘 넘겨 실업률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IT와 다른 “성장산업” 들이 회복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실업률에 있어서 지역, 사회경제적 간격이 새롭게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The Swedish Institute, 2005). 또 스웨덴의 경우 수년 동안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의 실업률보다 1% 정도로 약간 낮았다. 최근에 이러한 차이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제조업에 남성근로자에 대한 수요 증가와 공공부문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에 따른 여성 일자리의 감소에 의한 결과이다. 하지만 취업률을 보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높는데 그 주요한 이유는 고등학교 졸업 후 더 많은 비율의 여성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기 때문이다(Dagensnyheter, 2006-01-20). 스웨덴에서 실업을 논의할 때 또 한 가지 언급해야 할 사항은 스웨덴 이민자들이 스웨덴 자국민에 비하여 높은 실업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2004년의 실업률 통계를 보면 특히 비유럽계 출신 이민자들의 평균 실업률은 약 20%에 달하고 있다 (Arbetsmarknadsstyrelsen, Arbetsmiljöverket, Försäkringskassan och Socialstyrelsen, 2005).

임금상승과 인플레이션

최근 몇 년간 사용자들은 직원 채용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물론 실업률이 높은 반면 인플레이션의 낮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최근 3년간 명목임금이 서서히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과 2005년에 체결된 임금협상 결과는 몇 년 전과 비교하여 더 낮은 수준이었다. 이것은 명목임금이 아주 낮게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은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말한다. 2005년에는 임금이 3.3% 상승했고 2006년에는 3.4%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립경제연구소에 미래의 생산성 증가 추세를 분석하라고 의뢰할 때 장기적으로 어떤 규모의 임금상승이 균형 있는 거시경제발전과 부합할 것인가도 문의하였다. 국립경제연



구소의 결론은 연 4.0%의 임금상승은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의 균형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인해 2007년과 2008년도에는 임금이 연간 4.0%씩 오를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The Swedish Government, 2005:16).

현재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낮다.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한 2004년도 인플레이션은 0.4%였고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여 측정한 인플레이션은 0.8%이다. 몇 가지 이유가 스웨덴 경제가 이렇게 낮은 인플레이션 영향하에 있음을 설명해 준다. 최근 수 년간 낮은 임금상승과 높은 생산성 증가로 단위당 노동비용이 아주 서서히 올랐다. 예를 들어 저조한 수요 증대와 내구성 소비용품에 대한 강한 경쟁력은 상품의 수익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군다나 2003년 이후 에너지 수입을 제외한 수입상품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력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4년과 2005년의 난방용 기름과 휘발유 가격의 증가는 인플레이션 수치 증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3년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서서히 감소하여 현재는 중앙은행이 세운 연간 그리고 2년간 목표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낮은 자원 활용도와 저조한 임금상승에 대한 기대는 생산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내부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아주 서서히 오를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ibid, 16).

■ 맺음말

스웨덴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낮은 인플레이션과 명목임금의 낮은 상승으로 경제의 안정성을 보이지만 한편으로 스웨덴 경제가 성장하려면 새로운 활성 요소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심각한 사회 문제는 스웨덴 전체 실업률이 5.7%에 달하고 있고 그 중 비유럽계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2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사회민주당 정부가 2006년 선거를 앞두고 정부 예산편성 시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약 162,000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한 것을 보면 사회민주당 정부도 현재의 높은 실업률이 다가올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어쨌든 최근 스웨덴 정부 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긍정적인 2006년도 경제전망이 사회민주당의 재집권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KLI**

참고문헌

- Arbetsmarknadsstyrelsen, Arbetsmiljöverket, Försäkringskassan och Socialstyrelsen (2005) *Arbetslivsfakta*.
- *Dagens nyheter*, “Såsom i Kanada så ock i Sverige” (2006-01-25).
- <http://www.dn.se/DNet/jsp/polopoly.jsp?d=573&a=515849>
- *Dagens nyheter*, “Lura oss inte att studera” (2006-01-20) <http://www.dn.se/DNet/jsp/polopoly.jsp?d=573&a=514461>
- SACO (2006) “Akademikerarbetslösheten i December 2005”
- <http://www.saco.se/templates/saco/general.asp?id=4198> (2006-02-01).
- Socialdemokratiska arbetarpartiet (2003) Valet 2002: Stolta men inte nöjda.
- The Swedish Institute (2005) *Swedish Labor Market Policy*.
- The Swedish Government (2006) PROP. 2005/06 Bilaga 2, *Sweden's Economy*.